

오무라 마사오의 아카이브*

-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와 '열린 공공성' -

장문석**

〈차 례〉

- 오무라 마사오의 자료
- 아카이브의 형성 - 재일조선인 서재, 북한 단행본, 일본 도서관
- 아카이브와 연구의 연쇄 - 이광수 연구와 입화 연구의 기원
- 아카이브의 개방 - 목록집, 자료집, 문학 지도
- 오무라 마사오의 아카이브 -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와 '열린 공공성'

[국문초록]

오무라 마사오는 일본의 제1세대 한국근대문학 연구자, 번역가, 그리고 자료수집가였다. 식민지와 냉전으로 인해 한국근대문학 자료는 북한, 한국, 중국, 일본에 산재하였다. 오무라는 연구와 번역에 앞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오무라는 재일조선인의 서재, 북한의 출판물, 일본의 도서관을 통해서 한국근대문학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그는 김윤식, 임종국 등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연구를 검토하고 번역하였다. 오무라의 아카이브와 번역, 그리고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본원적 축적에 기여하였다. 또한 오무라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목록집, 자료집, 문학 지도 등으로 공간하였다. 오무라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널리 공

* 이 글은 2024년 국립한국문학관 해외수증기념 학술대회 〈한국문학과 오무라 마사오〉(연세대 위당관 100주년 기념홀, 2024. 2. 2.)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값진 토론을 이끌어 주신 권보드래 선생님(고려대), 조은애 선생님(동국대)께 감사드린다. 야나가와 요스케(柳川陽介) 선생님(埼玉大学), 다카하시 아즈사(高橋梓) 선생님(新潟県立大学), 정우경 선생님(서울대), 조민우 선생님(동의대)께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셨으며, 국립한국문학관의 후의로 오무라 마사오 기증자료 목록(초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유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번역과 연구의 시각의 경합과 풍요로운 지식의 생산을 지향하였다. 오무라 마사오의 아카이브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의 '열린 공공성'을 지향하는 연구의 태도를 시사한다.

[주제어] 오무라 마사오, 김윤식, 임종국, 자료, 번역, 한국근대문학, 도서관, 열린 공공성

1. 오무라 마사오의 자료

“윤동주 묘 찾아낸 오무라 마사오, 자료 2만점 한국에 기증.” 2023년 8월 한국의 언론은 오무라 마사오의 자료가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유족이 기증하는 2만여 점 자료엔 중국에서 수집한 한국문학 자료,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관련 자료,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주고받은 서신 등이 포함됐다.”¹⁾

오무라 마사오는 1933년 출생하여 1950년대 중반 대학 재학 중 중국어와 중국문학과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지도 아래 중국근대문학을 연구하던 그의 관심은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관계를 재구성하겠다는 바람에 이끌려 이윽고 한국근대문학으로 옮겨갔으며²⁾ 안보투쟁을 전후하여 총련계 단체에서 조선어(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1960년대 오무라는 일본조선연구소의 어학·문학연구부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1970년대 그는 동료들과 일본인의 시각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하는 동인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를 창립하였고, 동인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朝鮮文學 - 紹介と研究)』를 간행하였다. 오무라는 와세다대학 어학연구소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대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50여 년간 그는 번역자로서 한국근대문학 및 연구

1) 「윤동주 묘 찾아낸 오무라 마사오, 자료 2만점 한국에 기증 - 대표적 국외 한국문학 연구자…유족이 국립한국문학관에」, 『한겨레』, 2023.8.16.

2) 오무라 마사오, 「나와 조선」,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 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690쪽.

서를 번역하였다. 오무라의 학술적 성과는 일본에서 『사랑하는 대륙이여 - 시인 김용제 연구(愛する大陸よ - 詩人金龍濟研究)』(大和書房, 1992), 『중국조선족문학의 역사와 전개(中国朝鮮族文学の歴史と展開)』(綠蔭書房, 2003), 『조선근대문학과 일본(朝鮮近代文学と日本)』(綠蔭書房, 2003) 등으로 출판되었으며, 한국에서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전 6권, 소명출판, 2016~2018)로 정리되었다. 최근에는 『오무라 마사오와 한국문학 대담집』(소명출판, 2024)가 출판되었다.

1960년대 이래 오무라 마사오는 한국근대문학연구자이자 번역가였다. 동시에 그는 연구자와 번역자이기 이전에 자료수집가였다. 일본의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학술사적 전개에서 오무라 마사오의 자리는 “제1세대” 연구자이다.³⁾ 한국근대문학 연구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무라는 연구와 번역에 앞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동시에 식민지와 냉전이 이어진 동아시아의 근대에서는 오무라의 자료 수집은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그리고 냉전으로 인한 단절로 인하여, 한국근대문학의 주체들은 동아시아 곳곳을 이동하였다. 그 결과 한국근대문학과 관련된 자료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생산되었다. 둘째, 1945년 이후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이어지면서 한국근대문학의 주체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료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⁴⁾ 또한 중국의 조선족이나 일본의 재일조선인 등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체 역시 존재하였다. 셋째, 휴전 이후 냉전의 상황 아래에서 한국과 북한의 연구자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의 자료와 문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무라는 일본의 연구자로서 한국

3) 김윤식, 「일본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번역하는, 내가 아는 일본인 교수들」,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279쪽.

4) 자료 망실의 사례로는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간 김학철이 자신이 창작하고 번역한 텍스트를 분실한 것으로 예로 들 수 있다. (김민수, 「해방」의 전통과 복원 - 김학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9쪽.) 또한 한국 문학의 자료가 동아시아 바깥으로 옮겨간 사례를 들자면, 한국전쟁 과정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미군들은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여, ‘노획문서’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 중이다.

근대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일본에 소재하거나 일본어로 작성된 한국문학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 한국의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중국의 한국문학 관계 자료나 중국의 조선족 문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오무라의 연구는 북한 문학에서 한반도(한국 및 북한) 문학을 거쳐, 옌벤 및 제주도 문학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범주를 확장 및 재구성한다.⁵⁾ 그의 연구가 확장되는 과정마다 그는 일본, 한국, 옌벤, 제주도 등 동아시아 곳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무라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목록집과 자료집, 나아가 복각본(영인본)의 형태로 공개하였고, 이것은 일본의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오무라가 자료를 축적했던 시기인 1960~1980년대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근대문학 자료가 발굴 및 정리되고 동시에 다양한 자료집이 출판되고,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한얼문고, 1973) 등 이후 후속 연구를 촉발한 토대가 되는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던 시기였다. 오무라는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임종국과 김윤식은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사람은 서로 교류하였다. 오무라의 자료 수집은 일본에서 한국근대문학 연구가 본원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에 걸쳐 있는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근대문학 연구 및 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도 일정 기여하였다. 동시에 그는 자료를 독점하는 것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가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번역이 경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오무라 마스오가 수집한 자료를 하나의 아카이브(archive)로 이해하고자 한다. 푸코는 아카이브를 동일성의 증거로서 보존한 텍스트의 누적이거나 특정 사회에서 기억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태도에 거리를 두었다. 그에게 아카이브는 말해질 수 있는 것의 범칙, 단일한 사건으로서 언표들의 출현을 지배하는 체계이다. 아카이브는 모든 말해진 것을 하

5) 장문석, 「김학철과 윤동주 -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악어문학』 88, 동악어문학회, 2022, 106-109쪽 참조.

나의 언설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설들을 복수적인 실존 속에서 분화시키고 그들 고유의 지속 속에서 특이화하는 존재이다.⁶⁾ 오무라 마스오가 수집한 자료와 수집의 과정 및 맥락을 검토하는 것은 한 연구자의 서재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식민지와 냉전으로 인해 상호 소통이 어려웠던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을 연결하며 숯비한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오무라 마스오의 아카이브는 한국근대문학 연구라는 체계가 출현하고 그것이 복수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로 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오무라 마스오가 기증한 자료, 곧 오무라의 아카이브를 일본에서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축적 및 ‘열린 공공성’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아카이브의 형성 - 재일조선인 서재, 북한 단행본, 일본 도서관

1960년대 한국에서 한국학은 문학, 역사, 철학, 경제사 등으로 제도적 아카데미즘에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 및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⁷⁾ 1960년대 대학원에서 자료 수집을 시작한 김윤식은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상황을 “황무지”라 표현하였다.⁸⁾

6) 미셸 푸코,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187~188쪽.

7)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 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8) 한국근대문학의 기본적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던 한국의 상황에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수선사, 1947 및 백양당, 1949)는 “작품집이나 시집이 극히 제한되었던 칠홀 같은 어둠 속에서 일종의 ‘한국근대문학전집’의 뭉치를 곁”하였다. 김윤식, 『백철연구』, 소명출판, 2010, 558쪽. 『조선신문학사조사』는 1930년대 문학에 “직접 저자가 참여하게 된 관계로서 그 이후의 문학계의 동태에 대하여는 내 자신의 산지식을 기용”하였던 체험적인 저술인 동시에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한국전쟁 이후 증보판 간행 시에는 문헌사적 서술을 축소하고, “역사적인 정치적인 비극 때문에 우리 신문학사의 하반기를 서술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백철, 「후기」, 『조선신문학사조사 - 현대편』 백양당, 1949, 412쪽; 백철, 「증보판을 내면서」, 『증보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5, 1~2쪽.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 근대문예비평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이니까 거의 30여 년 전입니다. 왜 하필 문예비평사를 전공하기로 작정했는가를 잘 말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이 방면이 조금 학문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점과, 아직도 완전히 황무지였다는 두 가지 이유가 겹치지 않았을까. 자료를 모으고자 서대문에 있는 한국연구원 도서실, 국립도서관, 연세·고려대학 도서관 등을 헤매었고, 뜻밖에도 백순재씨의 호의를 힘입어, 당시로서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지요. 그때나 저때나 제 관심의 중심부에는 <근대성>이 놓여 있었던 만큼 비평사의 중심점은 도리없이 카프문학비평이었던 것입니다.⁹⁾

김윤식의 연구는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국립도서관(국립도서관), 대학 도서관(연세대 및 고려대 도서관), 공공도서관(한국연구원 도서실, 개인 소장가(백순재¹⁰⁾) 등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는 식민지 시기에 활동하였던 문학자의 서가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그는 백철의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장서를 열람하였고, 박영희의 유족으로부터 자료 인수를 제안받았다. 고려대 도서관에는 최남선 유족과 유진오가 기증한 장서가 배가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김윤식은 임종국을 만나기도 하였다.¹¹⁾ 성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완성된 김윤식의 첫 연구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1973)는 “사실(事實)의 학(學)”을 자부하였다.¹²⁾

9) 김윤식, 『박영희 연구』, 열음사, 1989, 13쪽.

10) 개인소장가 백순재의 소장 자료는 크게 세 종류였다. 조선시대 필사본, 신소설(100여 종), 식민지 시기 잡지. 그는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잡지의 목차를 정리하는 서지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1976년 이후 아세아문화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개화기 학술지 총서’(아세아문화사), ‘한국 개화기 문학 총서’(아세아문화사),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등을 간행하였다. 백순재가 수집한 자료는 후일 아단문고가 인수하는데 잡지 1,544종 1만 1,095책, 단행본 4,744책이었다. 정진석, 『백순재, 옛날 잡지에 생명을 불어넣은 서지학자』, 『책 잡지 신문 자료의 수호자』, 소명출판, 2015, 33~58쪽 참조.

11) 김윤식, 「머리말 -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형제」,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iii-ix쪽.

12)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울문고, 1973, 10쪽.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해서는 장문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의 학술사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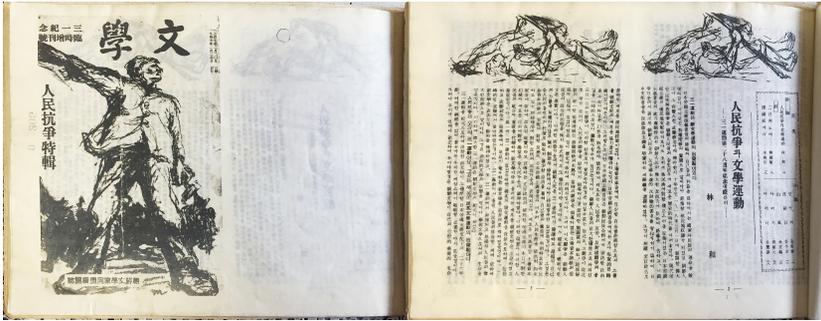
1960년 전후 도쿄에서 오무라는 조선어를 배우는 동시에 문학을 통해 “조선민족의 발상·사고방법 그것부터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식민지라는 조건에 유의하면서 “자유가 속박된 인간의 광명을 얻기 위한 투쟁, 그 에너지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그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문학사 연구의 대상은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이었다.¹³⁾ 오무라 역시 한국근대문학에 접근할 때, 김윤식이 느꼈던 ‘황무지’와 같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1960년대 오무라는 세 가지 경로로 한국근대문학의 자료에 접근했다. 첫째, 재일조선인 문학자를 통한 자료 접근, 둘째, 북한의 출판물을 통한 접근, 셋째, 일본의 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한 접근.

첫째, 재일조선인 문학자를 통한 자료 접근. 김윤식이 백철과 유진오를 방문하고 최남선과 박영희의 장서에 접근했듯, 오무라는 재일조선인 문학자 김달수의 서재를 찾아갔다. 오무라는 1958년 고마쓰가와사건(小松川事件) 이후 ‘이진우 소년을 돕는 모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김달수의 집을 방문하였다. 김달수는 거리낌 없이 자료를 보여주었으며, 오무라는 그의 서고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오무라는 김달수의 서고에서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 『건설기의 조선문학』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간행한 임화의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도 이때 입수한다. 당시 복사기가 없어서 오무라는 잡지를 사진기로 찍고 그것을 인쇄하여 묶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¹⁴⁾

문학연구』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609~613쪽에 근거하되 이 글의 시각에 따라 새롭게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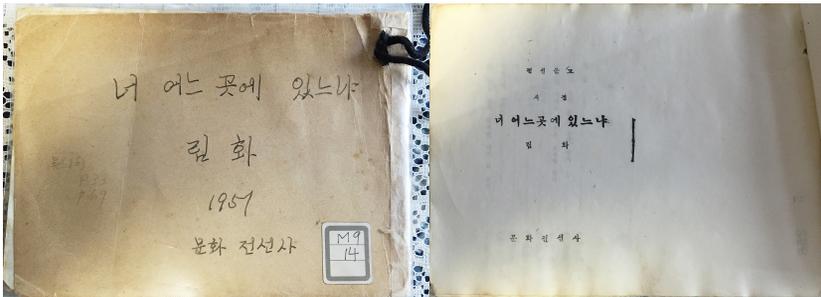
13) 오무라 마스오, 「나와 조선」, 692쪽.

14)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178쪽 및 235~237쪽.



〈그림1〉 오무라 마스오 소장 사진판 『문학』(인민항쟁특집호, 1947.2.)
(2015년 오무라 마스오 자택에서 촬영)

재일조선인 문학자 모두가 오무라의 자료 열람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무라는 이은직에게 잡지 『문장』의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이은직은 “일본인이 『문장』을 보면 악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열람을 거절”한다.¹⁵⁾ 하지만 결국 오무라는 해방 전의 『문장』과 해방 후의 『문학』과 『학병』 등을 복사본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¹⁶⁾



〈그림2〉 사진판 『너 어느 곳에 있느냐』
(2015년 오무라 마스오 자택에서 촬영)

15)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180쪽.

16) 「お知らせ」, 『朝鮮文學 - 紹介と研究』 12, 朝鮮文學の會, 1974.8, 76頁. 1974년 8월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폐간호는 『문장』, 『문학』, 『학병』 등의 여분이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도록 독자에게 안내한다.

오무라가 재일조선인 문학자로부터 얻었던 자료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간행된 조선문학가동맹 계열 문학자의 단행본이나 잡지가 중심이었다. 중일전쟁기에서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경성과 평양에서 출판된 잡지 및 단행본은 1919년생 김달수와 1917년생 이은직이 생애사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후에 현해탄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였다. 해방 이전 이은직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일본어로 번역하였고, 번역 원고를 소장하고 있던 김달수는 그것을 해방 이후 『민주조선』에 게재하였다.¹⁷⁾ 1951년 김달수는 김태준의 죽음을 다룬 보고를 『민주조선』에 신기도 하였다.¹⁸⁾ 『문학』에 실린 이태준, 임화, 김태준, 김남천, 이원조 등의 작품은 김달수 등의 번역을 거쳐 큰 시차 없이 『민주조선(民主朝鮮)』에 실렸고, 북한에서 임화와 이태준이 발표한 작품은 허남기의 번역을 통해 『인민문학(人民文學)』에 실렸다.¹⁹⁾

김달수가 소장한 『문학』은 1940년대 『민주조선』에 번역된 텍스트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가 1960년대 오무라가 그것에 접근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무라가 재일조선인 문학자를 통해 접근한 대상은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 조선문학가동맹 문학자로, 이들은 월북과 숙청으로 남과 북 모두에서 공식적인 텍스트 유통이 어려웠다.²⁰⁾ 1960년대 오무라가 김달수의 서재에

17)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재일조선인 문학』, 소명출판, 2021, 200~203쪽. 특히 주석 40 참조. 1990년대 중반 이은직이 발표한 자전적 소설 『조선의 여명을 찾아서(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에는 재일조선인 주인공이 1940년 전후 경성으로 건너가 김태준을 만나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고, 『조선소설사』를 선물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18) 이용범, 「김달수의 「살해당한 김태준에 대하여」(1951) 자료 소개」, 『근대서지』 21, 근대서지학회, 2020.

19)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4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2, 87~88쪽; 오미정, 「전후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수용 - 잡지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158~159쪽; 오미정, 「1950년대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특징 - 『신일본문학』과 『인민문학』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3(1), 한국근대문학회, 2012, 185~186쪽.

20) 1946년 2월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에서 임화는 중일전쟁기 조선의 문학자들 사이에 ‘조선어’, ‘예술성’,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전선”이 존재하였음을 환기하였다. 그는 중일전쟁기 문학자가 형성한 공동전선이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서는 성격을 가졌고, “조선의 문학자들이 신문학 이래 처음으로 공동노선에서 협동했다는 사실”을 특기한 바 있다. 1950년대 중반 김달수는 한국에 대한 개설적인 저서 『조선 - 민족 · 역사 · 문화(朝鮮 - 民族 · 歴史 · 文化)』(岩波書店, 1958)을 집필하면서 임화의 이 언급을 자신이 서술에 삽입하였다.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서 발견한 『문학』은 1940~195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를 오갔던 재일조선인 문학자의 지향을 보여주는 자료인 동시에, 중일전쟁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식민지와 냉전의 상황 아래에서 망각된 조선문학가동맹 문학자의 문학적 실천을 증언하는 자료였다.

둘째, 북한의 출판물을 자료 접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는 국가 기획으로 문화적 역량을 동원하여 세 종류 선집을 기획 간행한다. 『조선고전문학선집』(국립문학예술출판사, 1958~1965?), 『현대조선문학선집』(전 16권,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1961), 『세계문학선집』(71권 규모 및 30권 출판 확인, 국립문학예술출판사 및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0~1967?)이 그것이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박세영, 백석, 이기영, 이북명, 이용악, 이찬, 최명익, 한설야, 홍명희 등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문학자 외에 강경애, 김소월, 나도향, 이상화, 이육사, 최서해, 채만식 등 당시에 이미 타계한 문학자까지를 포함한 기획으로 “8·15 해방 전에 발표된 시, 소설, 희곡, 씨나리오, 아동 문학 작품, 평론, 수필, 기행문, 서간”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을 아우른 30권 기획으로, 실제 16권이 간행되었다.²¹⁾ 탈식민 국가 북한이 국가 주도로 1920~30년대 한국근대문학을 정전화하였던 출판물인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일본으로 건너와 오무라에게 도달한 것이다.²²⁾ 북한에서는 문학

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하정일 편, 『입화문학예술전집 5 - 비평 2』, 소명출판, 2009, 423쪽; 金達春, 『朝鮮 - 民族 · 歷史 · 文化』, 岩波書店, 1958, 191~192頁. 중일전쟁기 조선문학자의 굴절된 ‘공동전선’에 관해서는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93~103쪽;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2011, 233~236頁 등 참조. 오무라는 김달수의 문학적 지향에 대하여 “김달수는 해방 후 입화의 노선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평한 바 있다. 그는 김달수를 비롯한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입화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반성한 위에 ‘민주 문학’을 전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무라 마스오 · 광형덕, 『조선문학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의 삶과 문학 1』(인터뷰), 편집부 편,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6 - 오무라 마스오 문학앨범』, 소명출판, 2018, 432쪽.

21) 『현대 조선 문학 선집』 편찬 위원회로부터, 『조선문학』 131, 1958. 7, 25쪽, 『현대조선문학선집』은 이상, 유진오 등 모더니즘 문학자와 입화, 이태준, 김남천 등 숙청된 문학자를 제외하고는 1920년대에서 해방에 이르는 시기 한국근대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출판 기획이었다. 실제 16권이 간행되었고, 문학자 66명과 작품 902편이 수록되었다. 남원진,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 원리와 균열 양상 -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참조.

22) 국립한국문학관 오무라 마스오 기증자료 목록(초안)에 따르면, 오무라는 북한의 『현대조선문학

사의 정전을 편집한 선집뿐 아니라, 『조선문학통사』(전2권, 과학원출판사, 1959)를 간행하여 문학사 이해의 구도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삼 년이 지났을 때일까. 김달수 씨의 소개를 통해, 그가 불쑥 찾아왔다. 우에노의 차집에서 만나 잠깐 잡담을 하다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한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방에서 『조선문학통사』라는 제목의 작은 조선어 활자가 빼곡한 책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는 붉은 연필로 이곳저곳에 붉은 밑줄을 그은 책을 펼치고 주로 1920년대 문학의 평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 그때 나의 놀라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²³⁾

오무라가 북한 문학을 경유하여 1920년대 문학에 접근하는 과정은 일본 조선연구소의 활동과 겹쳐 있었다. 1960년대 초반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일본에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본조선연구소가 창립되었다. 일본조선연구소는 “우리 일본인”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조선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학술단체인 동시에 사회운동 단체였다. 공산당의 데라오 고로(寺尾五郎), 와세다대학의 중국학 연구자 안도 히코타로(安藤彦太郎) 등 좌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동아시아 인민연대’를 지향하면서 중국 및 북한과도 연결되어 있었다.²⁴⁾ 오무라는 일본조선연구소 어학·문학연구부회에 소속되어 조선어 학습 및 번역을 담당하였다. 다만, 일본 조선연구소에서 조선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무라의 입장은 소수였으

선집은 제1권 『소설집』(1957), 제2권 『시집』(1957), 제3권 『리기영 단편집』(1958), 제4권 『한설야 단편집』(1959), 제5권 『소설집』(1958), 제6권 『소설집』(1958), 제7권 『소설집』(1958), 13권 『장편 소설 고향』(1959), 제14권 『소설집』(1959), 제16권 『장편소설 황혼』(1959) 등을 소장하였다.

23) 尹学準, 『日本人と朝鮮語 - 大村益夫さんと私』, 『民主文学』23, 新日本出版社, 1967. 10, 119頁.

24) 古屋貞雄, 『『朝鮮研究月報』創刊に際して』, 『朝鮮研究月報』1, 1962. 1, 1頁;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213~214쪽; 조은애, 「『조선학』을 되돌아보기 위한 괄호들 - 하타다 다카시 편, 주미에 옮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 제국 일본, 조선을 말하다』(소명출판, 2020), 『동방학지』 19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143~173쪽; 주미에, 「일본조선연구소의 연대(連帶)의 공명(共鳴) 방식과 일그러진 조선관 -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연속 심포지엄과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103~142쪽.

며, 연구소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치적 활동에 매진하였다.²⁵⁾ 오무라는 어학·문학연구부회 회원들과 함께 『현대조선문학선집』 1권에 실린 나도항의 「행랑자식」을 조선어로 읽었고 번역을 시도하였다.²⁶⁾ 이 시기 오무라는 최서해의 「탈출기」, 조명희의 「락동강」를 일본어로 번역한다.²⁷⁾ 모두 『현대조선문학선집』 1권에 실린 작품들이다.

셋째, 일본의 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한 접근. 오무라는 일본의 대학에 소장된 조선문학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였다. 1964년 12월 오무라와 조선사 연구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각각 「『조선지광』 1927. 11~1930. 1. 총목록」과 「『동아일보』 1920~1928 소장 문학작품 목록」을 『조선연구』에 발표한다. 오무라는 와세다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지광』의 목록을 정리하였고, 가지무라는 당시 서울 동아일보사가 간행한 창간에서 1928년까지의 축쇄본을 검토하여 『동아일보』 소장 문학작품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가지무라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의 일간지, 혹은 『개벽』이나 『조선지광』 등의 월간지 등이 “1920년대로부터 30년대에 걸쳐 조선인의 합법 범위에서의 중심적인 발표기관, 논단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비록 검열 아래에서 간행되지만 “총독부 측의 사료에서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다수의 기사를 포함한 중요한 사료”라고 언급한다.²⁸⁾ 오무라와 가지무라의 작업은 식민권력이 생산하여 ‘일본어로 이야기되는 세계’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 만들어 간 ‘조선어로 이야기되는 세계’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²⁹⁾ 동시에 이들 목록의 작성은 남북 분단을 넘어서 식민지 조선의 실체에 접근하는 길이었다.

25)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131쪽, 171쪽, 239~241쪽.

26) 「活動の反省と展望 - 語学・文学研究部会」, 『朝鮮研究』 34, 1964. 11, 4頁.

27) 1960년대 초반 오무라는 최서해의 「탈출기」와 조명희의 「낙동강」을 번역하였다. 「脱出記」(『柿の会月報』 20~21, 柿の会編集部, 1962. 4~6.), 「洛東江」(『朝鮮と文学』 1~2, 朝鮮文学の会, 1964. 1~2.). 이 두 작품은 이후 손질을 거쳐 『조선연구』에 다시 발표된다.

28) 梶村秀樹, 「東亜日報(1920~1928)所載文学作品目録」, 『朝鮮研究』 35, 1964. 12, 42頁.

29) 가지무라 히데키와 ‘조선어로 이야기되는 세계’에 대해서는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2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22, 102~104쪽 참조.

『조선지광』은 『개벽』에 이어 두 번째로 문학과 관련이 깊은 잡지이다. 그리고 카프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다음은 1927년 11월호(통권 73호)로부터 1930년 11월호(통권 93호)까지의 목록이다. 그 이전의 것과 그 이후의 것도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 시기는, 카프의 조직 개혁 이전, 제1차 검거 사건에 이르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가장 성대하게 개화했던 시기이다. 현재에 남겨진 뛰어난 단편 소설이나 희곡은 모두 이 잡지에 실렸다고 해도 좋다. 이 잡지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다. 또한 문예이론에서도 창작방법의 수립, 예술적 형상과 주제의 적극성의 관계, 문학의 대중화, 형식과 내용, 농민문학 등등의 문제가 지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다. / 편집자로는 이기영, 한설야, 조명희 등이 있다. / 이론 및 창작 상의 주요 인물은 한설야, 박영희, 김기진, 이기영, 최승일, 김영팔, 송영, 이량, 유진오, 이복명, 박광양 등이다. 그들은 모두 젊은 청년이다. 유진오 등은 아직 경성제대 학생으로 진영을 확장하고 있다. / 그들 중에는 현재도 공화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기영, 송영, 한설야, 김동환, 이복명, 조선전쟁 가운데 죽은 김영팔, 전후에 입북(入北)하였다가 죽은 윤기정, 북에서 반국가적 스파이 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임화, 남에서는 현재 고려대학 총장 유진오, 이전 서울신문사장을 역임한 김법린, 군사혁명에서 구속된 주요한, 이화여대, 성균관대 교수로 근무하다 얼마 전에 죽은 변영로 등등. 당시는 일선에 나란히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전진하고 어떤 이는 후퇴하고,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지금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문학작품의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채록되어서 공화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듯하다. 한설야의 「씨름」에 대해서 말하자면, 스토리가 똑같지만 잡지에서는 후반부가 중단되어 있다. 언어도 꽤 다르다. 어려운 조건에서는 붓을 구부린 곳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선집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작품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열은 심하다. 복자 투성이다. 특히 신간회를 논의한 글에서는 전혀 뜻을 닿지 못한다. / 필명이나 호는 불분명한 것이 많다. 만년설, 한병도는 모두 한설야이고, 포석은 조명희, 민촌은 이기영. 이정도는 알고 있더라도, 의외로 동일인이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 목록 가운데 ‘논문’이라든가 ‘문예 평론’이라는 분류는 대부분 잡지의 목차에 따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도 있다.

『조선지광』은 와세다대학 도서관의 소장. 사진을 찍기 희망하는 분은 일본조선연구소로 연락을 바란다. 또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어울려 이 잡지 유통회가 열린다면 멋지리라 생각된다.³⁰⁾

오무라는 와세다대학에 소장된 『조선지광』 1927년 11월호(통권 73호)로부터 1930년 1월호(통권 93호)를 검토하였다. 오무라는 잡지 『조선지광』의 목록을 정리한 바탕에서, 『조선지광』의 문화사적 의미를 진단하고 그곳에 프로문학의 주요한 창작 및 이론적 논쟁이 실렸다고 진단한다. 또한 주요 필자들이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오무라는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사의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기본적인 텍스트 검토를 수행한다. 그는 검열에 주목하였고, 현재 북한의 판본과 『조선지광』의 판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의 도서관에 소장된 식민지 시기 원본 자료에 접근하면서, 오무라는 북한의 문학사적 시각을 상대화하면서 텍스트 비평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1960년대 오무라는 재일조선인 문학자로부터 해방전후 서울 및 한국전쟁기 평양에서 간행된 잡지 및 단행본을 입수하였고, 북한의 문학사 정리 및 문학사 정전 선집 출판물을 통해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에 접근해 갔다. 또한 일본의 도서관을 통해서도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료의 구축은 번역과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오무라는 해방전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문학은 번역하지는 않았고, 주로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을 번역하였다. 전자는 재일조선인에 의해 이미 한 차례 번역된 바가 있었고, 후자는 당시 아직 일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또한 1920년대는 본격적으로 한국근대문학이 성립한 시기였다. 동시에 오무라는 전자와 후자 모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자의 연구는 「해방 후의 임화(『解放後の林和』)(『社会科学討究』 13(1), 1967.6.)로 후자의 연구는 「1920년대 조선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과 「민족주의문학」(1920年代の朝鮮文学-プロレタリア文学と

30) 大村益夫, 「朝鮮之光 目錄解題」, 『朝鮮研究』 35, 1964.12, 32~33頁.

「民族主義文學」)」(『文學』, 1965. 11.)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자는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위에서 당시 남과 북 모두에서 지워진 임화의 해방 이후 문학적 실천을 복원하는 동시에 비판적으로 진단한 연구였다. 후자는 1920년대 문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담은 글인 동시에, 남과 북 모두에서 언급을 피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학 교류 및 인민의 역사적 연대를 입증한 연구였다. 두 연구 모두 냉전 체제하에서 남과 북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문학과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한 것이다.³¹⁾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조선연구소에서 그동안의 활동이 운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조선문학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이에 따라 오무라와 가지이 노보루(梶井陟)는 ‘조선문학’ 소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침을 마련한다.

1. 가능하면 조선문학 본연의 모습을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번역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 작품을 선택하고 번역에 임한다.
2. 대상을 현대문학으로 하고, 그 시작에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두까지 식민지 아래 조선의 통치와 치열하게 싸웠던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활동에 둔다.
3. 이 기획은 가능한 한 이어가지만, 우선은 ‘카프’의 중핵으로 활동하였던, 이기영, 한설야 외에 송영(극작가), 박세영(시인), 최서해(소설가), 조명희(소설가·시인) 등의 작품을 선택한다.³²⁾

1966년 10월, 향후 1년 반 동안 식민지 조선문학과 해방 이후 남북의 문학을 소개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첫 번역이 『조선연구』에 실렸다.³³⁾ 먼저 오

31)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297~300쪽;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92~95쪽.

32) 梶井陟, 「朝鮮文學翻譯の足跡 (11)」, 『季刊三千里』 32, 三千里社, 1982. 11, 218頁.

33) 연재 당시 편집부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조선연구』는 ‘조선문학’에 대한 지면이 적었다. 무엇보다 ‘조선문학’이라고 했을 경우, 일본인 대부분은 ‘제일조선인의 문학’을 떠올리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 그럴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던 30여 년간의 역

무라가 번역한 「락동강」과 「탈출기」가 손질되어 다시 실렸고 가지이가 번역한 한설야의 「과도기」, 이기영의 「창작 방법의 문제에 대하여」, 한설야의 「프로예술의 선언」이 소개된다.³⁴⁾ 하지만 한설야 작품의 소개에 대하여 조선총련이 항의하였다. 항의의 요점은 “1950년대 후반에 한설야는 우리나라(공화국)에서 부정되고 있다. 더구나 「과도기」는 공화국판도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였다.³⁵⁾ 번역자 가지이는 동시대 북한에서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유보하면서, 「과도기」를 문학사적 시각에서 한정하여 소개하였다.³⁶⁾ 하지만 조선총련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숙청된 문학자를 일본인이 새롭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번역 대본이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아니라 와세다대학에 소장된 『조선지광』에 수록된 판본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실린 해방 이전 작품 상당수는 해방 후에 대폭 개고한 것이었다. 오편은 『조선지광』에 실린 한설야의 「과도기」 초출본을 통해 냉전의 이념이 개입하기 이전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사에 온전히 접근하고자 한

사는, 분단된 조선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 뿌리 깊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진정한 ‘조선문학’을 일본 독자의 눈에 띄지 않게, 먼 곳으로 쫓아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는, 조선어로 쓰여, 조선민족의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격렬한 분노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 ‘조선문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획은, ‘조선문학’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또 1945년 이후의 부분은, 남북 조선의 소설 및 논평을, 이번 10월호(55호)로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번역 그 자체에도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작은 힘 가운데 이어가는 이 작업에 대하여 독자의 적극적인 비판과 협조를 바란다. (편집부) 『朝鮮研究』 55, 1966.10, 12頁.

34) 趙明熙, 大村益夫 訳, 「洛東江」, 『朝鮮研究』 55, 1966.10.; 崔曙海, 大村益夫 訳, 「脱出記」, 『朝鮮研究』 56, 1966.11.; 韓雪野, 梶井陟 訳, 「過渡期」, 『朝鮮研究』 58-59, 1967.1-2 · 3.; 李箕榮, 梶井陟 訳, 「創作方法の問題について」, 『朝鮮研究』 60-61, 1967.4-5.; 韓雪野, 梶井陟 訳, 「プロレタリア芸術宣言」, 『朝鮮研究』 62, 1967.6.

35) 광형덕 편, 『오편과 마소오와 한국문학』, 255쪽. 『조선연구』의 한설야 소개와 그로 인한 조선총련의 항의에 대해서는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301~302쪽 참조.

36) “해방 후 다시 펜을 들었던 그는 정력적으로 수많은 단편과 「역사」, 「대동강」 등의 장편을 썼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위원회와 문학예술총동맹[sic]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그러나 그 후, 그에게 여러 비판이 가해진 것 같고, 작가 생활을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지 역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의 근대문학을 이야기할 경우,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줄역을 실었다. / 이 소설이 탁월했다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쓰인 1920년대 후반은 일본 국내에서도 과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도기」가 당시 조선문학의 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던 것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梶井陟, 「解説(その2)」, 『朝鮮研究』 59, 1967.2 · 3, 38頁.

셈이다.

일본조선연구소는 조선총련의 항의를 적당히 얼버무렸고, 조선 문학 소개는 중단된다. 한설야의 번역을 둘러싼 사건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 소개의 과정에서 오무라가 경험했던 정치적 곤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무라의 자료 수집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무라는 북한에서 출판한 출판물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에 접근했던 단계를 넘어서, 직접 원본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텍스트와 해석을 상대화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후 오무라는 일본조선연구소에 거리를 두고, 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3. 아카이브와 연구의 연쇄 - 이광수 연구와 임화 연구의 기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다. 오무라의 한국근대문학 읽기 및 번역 모임은 그의 와세다대학 연구실에서 이어지지만, 그가 한국문학 작품을 접하는 경로는 이전과 달라진다. 그는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인간사, 1961), 『한국단편문학전집』(전 5권, 백수사, 1965) 등을 읽었다. 『한국현대문학사』와 『한국단편문학전집』을 통해서 오무라는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과 다른 한국근대문학을 발견해 간다.³⁷⁾ 구체적으로 그의 문학사적 시각이 이광수, 최남선, 1930년대 ‘순수문학’ 등으로 확장되는데, 그 결과가 「빼앗긴 들의 빼앗기지 않은 마음 - 해방 전의 조선근대문학(奪われし野の奪われぬ心 - 解放前の朝鮮近代文学)」(『文学』, 1970. 11.)이다. 이 글에서 오무라는 현진건의 「빈처」, 김동인의 「붉은 산」, 유진오의 「김

37) 훗날 오무라는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선집』과 한국의 『한국단편문학전집』에 수록된 작품의 목록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대조표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남측에 있으면 북측에 없고, 북측에 있으면 남측에 없다. 같은 시기 한 나라의 문학사가 마치 두 나라 문학사처럼 보인다. 남북 양측에서 함께 평가하고 있는 작가는 채만식, 강경애, 나도향, 최서해 네 사람이 전부이다.”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1990, 456쪽.

강사와 T교수, 임옥인의 「후처기」,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을 다루었다. 이전까지 프롤레타리아문학 중심에서 모더니즘 문학 및 이중어 문학으로 문학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된 것이다. 같은 해, 오무라는 가지이 노보루,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조 쇼키치(長璋吉) 등과 함께 동인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를 결성한다.

이 회에 일정한 입장은 없다. 우리 회는 조선문학의 소개와 연구에 의욕을 불태우고, 회비를 내고, 연구회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제외하고는 회원 개개인의 행동 일체를 구속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이 회 자체는 회원 개개인의 협의체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 회에는 회칙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모임이 일본인의, 적어도 일본인을 주체로 한 모임이라는 점, 백두산 이남에서 현해탄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던, 또는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낳은 문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자. 우리의 마음에 38선은 없다.³⁸⁾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조선문학의 회’ 역시 ‘일본인의 시각’을 강조하였다. ‘조선문학의 회’는 연구회 참가 의무를 제외하고 ‘행동 일체를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개인의 주체적인 실천과 참여를 천명하였다. 동시에 ‘일본인을 주체로 한 모임’이라고 천명하는 순간, 1960년대 오무라가 한국근



〈그림3〉 오무라의 연구실에서 동인지를 발송 중인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
(『朝日アジアレビュー』 3(3), 1972.9)

38) 오무라 마스오, 「진군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 동인의 변(進軍のラッパは聞えない - 同人の弁)」(『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1, 1970.12.),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윤희동주와 한국근대문학』, 696-697쪽.

대문학에 접근하였던 두 가지 매개인 재일조선인과 북한과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조선문학의 회’ 외부의 한국문학 관련 행사는 여전히 재일조선인 문학자 및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지만, 그들의 동인 가입은 끝내 거절하였다.³⁹⁾

재일조선인과 북한에 거리를 둔 자리에서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은 한국 근대문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조선문학 연구를 업으로 삼는 학자는 없었던” 상황인 것도 사실이었다. 오무라는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불모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느니 누구든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조선문학의 회’의 “작업이 작은 밑알이 됐다면 그것도 족”하다고 언급하였다.⁴⁰⁾

오무라와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은 냉전 체제 하 북한과 한국의 문학사 이해 모두에 거리를 두면서, “백두산 이남에서 현해탄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던, 또는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낳은 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조선문학의 회’는 한국근대문학 작품 번역, 연구, 자료 소개 등을 모은 동인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간행하였다. 오무라는 동인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지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다.

〈표〉『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에 게재한 오무라 마스오의 글

권호	구분	저자	제목	비고
1970.12.	1	평론	송민호 일제말기 암흑기 문학의 저항(日帝末期暗黒期文學の抵抗)	『동방학지』 9집(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68)
1971.3.	2	소설	김동리 무녀도(巫女圖)	
1971.6.	3	시	김지하 아주까리 신평 - 미시마 유키오에게(アジュカリ神風 - 三島由起夫に)	
1971.12.	5	자료안내	오무라 마스오 일본 유학시대의 이광수(日本留學時代の李光洙)	

39)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188쪽.

40)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149~150쪽.

1972.3.	6	자료안내	오무라 마스오	『백조』와 그 동인들 (『白潮』とその同人たち)	
1972.7.	7	평론 (해제)	김윤식	일본문단과 재일교포작가 (日本文壇と在日僑胞作家)	『세대』, 1972.4. (이회성의 「반쪽말이」 번역, 김윤식의 해제, 이호철의 「역자의 말」)
1973.9.	10	수상	오무라 마스오	그 땅의 사람들 (かの地の人々)	
1974.1.	11	소설	최해군	파문(波紋)	『현대문학』 1973.2.
1974.8.	12	동화	황민(ファン·민)	아버지(アボジ)	부기(1957.1. 작, 『아버지』(황민 작품집), 1963.)
1974.8.	12	동요	박세영 (朴世永)	무궁화(ムゲンホア)	부기(1954.8.28.)
1974.8.	12	동요	박종경 (朴京種)	아버지의 배(アボジの船)	
1974.8.	12	동요	김우철 (キム·ウ チョウル)	벼짚 쌓기(稻むら積み)	
1974.8.	12	해설	오무라 마스오	아동문학 각서 (児童文学おぼえがき)	

오무라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에 기고한 글들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을 보여주는 한편, 그가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의 성격 또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목록에서 제12호에 수록된 작품은 북한의 작품이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작품이다. 오무라는 남북 모두의 문학에 관심을 보이는데, 특히 그가 1960년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국의 문학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오무라는 동시대 한국의 소설가, 시인, 평론가의 작품을 발표 지면에 실린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아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문학 연구를 위한 일차 자료를 발굴하고 공개하였다.

‘조선문학의 회’의 동인이 강조한 일본인의 주체성이 한국문학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인들은 일본인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류하였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은 그러한 소통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창간호에는 이시카와 세쓰(石川節)의 번역으로 현진건의 작품 「빈처」가 실려 있다. 이 번역은 오무라

역시 검토하였던 『한국단편문학전집』 제1권(증보 제4판, 백수사, 1956)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또한 번역자는 현진건이 한국에서는 “어떤 작가보다도 높이 평가된 작가”이지만, 북한에서는 『조선문학통사』 하권(과학원출판사, 1959)에서는 무시하였으며 『어문연구』 2호(1966)의 「비판적 리얼리스트 현진건」을 통해 재평가되었음을 기록해 둔다.⁴¹⁾

이후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제3호에는 선우희의 「묵시」(『현대문학』 1971. 2.)가 오구라 히사시(小倉尙)의 번역으로 실렸다. 그런데 이후 선우희가 일본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그것이 일본에 전해지기도 하였다.⁴²⁾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가 동인이나 일본 독자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의 문학자들에게도 일부 전해지고 그것을 매개로 한국의 문학자와 일본의 번역자가 만날 계기가 된 것이다.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었다. 1972년 4월 『세대』는 이회성의 「반쪽발이」를 번역하면서, 이호철의 「역자의 말」과 김윤식의 평론을 함께 소개하였다. 그러자 오무라는 김윤식과 이호철의 글을 번역하여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제7호에 소개하였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에 동시대 한국의 작품이 번역될 수 있었던 맥락에는 1965년 이후 한일의 연구자와 번역자들이 서로의 나라에 직접 방문하였던 주체의 이동이 놓인다. 다나카 아키라는 한국 고려대 대학원에서 고전문학을 연구하였고, 조 쇼키치는 한국 체류를 바탕으로 「나의 조선어 소사전(私の朝鮮語小辞典)」을 8회 연재하였다.⁴³⁾ 한국의 연구자들도 현해탄을 건넜다.

1970년 김윤식은 카프문학 연구를 위해 하버드 엔칭 장학금으로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 1년간 체류를 계획한다. 오무라는 김윤식의 일본 체류와 연구를 도왔으며, 김윤식은 오무라의 와세다대학 연구실에서 ‘조선문학의 회’ 소속 연구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소

41) 石川節, 「作家紹介 - 玄鎮健」,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1, 1970. 12, 19頁.

42) 為田英一郎, 「朝鮮のこころをたずねて - 朝鮮文学の会」(サークル歴訪), 『朝日アジアレビュー』 3(3), 1972. 9, 162頁. 야나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확인하였다.

43)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1~4호, 6~7호, 9호, 11호에 연재하였다.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 長璋吉, 『私の朝鮮語小辞典 - ソウル遊学記』, 北洋社, 1973.

통하였다. 김윤식은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이 “극히 빈약한 자료밖에 없고 한국문학 동향에 껍 든감”한 상황에 있었다고 진단하였다.⁴⁴⁾

김윤식은 일본 체류 기간 동안 “일본근대문학관과 와세다대학 도서관에 파묻혀” 자료를 조사하였다.⁴⁵⁾ 오무라는 김윤식에게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자와 연구동향, 각 도서관의 조선문학 자료 분포, 도서관 이용법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김윤식은 일본에 유학한 한국 문학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오무라는 김윤식이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였던 조선인 유학생 자료조사와 이광수의 고등부 시절 학적부를 열람하도록 편의를 베풀었다. 후일 김윤식은 오무라의 도움 덕분에, 소속된 도쿄대학보다 와세다대학 도서관에서 마음이 편하였다고 쓰기도 하였다.⁴⁶⁾

1971년 12월 오무라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에 기고한 「일본 유학 시대의 이광수(資料紹介 - 日本留学時代の李光洙)」는 일본에 소개한 한국 근대문학 연구자료를 발굴한 사례이다. 오무라는 메이지학원(明治学院)의 『백금학보(白金學報)』 제19호에 실린 「사랑인가(愛か)」, 이광수의 메이지학원 성적표, 와세다대학 학적부와 성적표 등의 자료를 소개하였다. 같은 시기 김윤식은 한국에서 「사랑인가」를 번역하여 『독서신문』(1971. 12. 5.)에 소개하였다.⁴⁷⁾ 후일 김윤식은 “와세다대학 학적부 및 첫 작품 「사랑인가」(『백금학보』 제19호) 등을 오무라(大村) 교수의 도움으로 확인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라고 감격과 사의를 기록해 두었다.⁴⁸⁾ 1980년 김윤식은 2차 일본 체류에 나섰을 때, 도쿄대학 및 와세다대학 도서관 서고에서 자료를 열람하였고, 메이지 시대의 사상과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는 한편, 이광수가 『개조』에 기고한 「만영감의 죽음」(1936. 8.)을 발굴한다. 그 발견은 『이광수와 그의 시대』의 저술로 이어졌다.⁴⁹⁾

44) 김윤식, 『동경일기(東京日記) · I』,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 솔, 1995, 400~402쪽.

45) 김윤식,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2012, 38쪽.

46) 김윤식, 『비도 눈도 내리지 않는 시나가와 역』, 솔, 2004, 19~20쪽 및 218~219쪽.

47) 김윤식,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2012, 736쪽. 이후 김윤식은 「산사 사람들」과 함께 「사랑인가」를 『문학사상』(1981. 2.)에 다시 수록한다.

48) 김윤식, 「낮선 신을 찾아서 - 김동인 연구를 마치며」,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1988, 267쪽.

49) 김윤식, 「글쓰기의 리듬감각 -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마치며」, 『김윤식평론문학선』, 문학사상,

김윤식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접근을 불가능했던 자료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는 오무라의 도움으로 프로문학 문학자 및 북한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때 김윤식은 1960년대 오무라가 수집한 자료 중 임화의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를 검토한다. 귀국 이후 1972년 김윤식은 「임화 연구 - 비평가론 기7」(『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제4집,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를 집필하였고, 그곳에 『너 어느 곳에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원시(原詩)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의 「해방 후의 임화(解放後の林和)」(『와세다 사회과학토구(早稻田社会科学討究)』 제13권 1호)의 일역(日譯) 부분을 참조했음. 이하 일부를 소개함. 『아직도 앞머리를 내려/ 내려 땅을 짓을/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던/ 너는 지금/ 바람찬 눈보라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 있느냐/ 어지간히 백발이 된 아버지를 생각하며/ 바람 부는 산 속에 있는가/ 가슴이 종이처럼 얇은/ 언제나 가슴앓이의/ 에미를 생각하며/ 헤어주는 들길에서 있는가/……/ 그리운 내 자식아……』(『너 어디에 있느냐』 일역에서 대의(大意)만 번역함.)⁵⁰⁾

김윤식은 북한의 출판물인 임화의 시집을 실제로 직접 열람했다고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오무라의 논문을 접근의 알리바이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김윤식은 오무라가 1960년대에 발표한 논문 「해방 후의 임화」를 통해 오무라가 일본어로 번역한 임화의 시를 보았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임화에 대해 쓸 수 있었다.⁵¹⁾ 「임화 연구」는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한얼문고, 1973)의 마지막 장으로 실린다.

김윤식이 일본에서 자료를 보완하며 완성한 연구를 한국에서 발표하자, 오무라는 현해탄 건너편에서 호응하였다.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출간

1991, 447~463쪽.

50) 김윤식, 「임화 연구 - 비평가론 기7」,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 4, 서울대 교양과정부, 1972, 18쪽, 주석 29; 김윤식, 「임화 연구」,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얼문고, 1973, 585쪽, 주석 29.

51)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181쪽.

직후 오무라를 비롯한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그 책을 10권 주문하였다.⁵²⁾ 오무라는 김윤식의 저작『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일지사, 1974)을 편집 및 번역하여『상흔과 극복 - 한국 문학자와 일본(傷痕と克服 - 韓国の文学者と日本)』(朝日新聞社, 1975)으로 출판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김윤식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징용과 공출로 아픔에 가득찬 민족의 역사와 뜻 모르는 서정성으로 가득찬 개인의 기억이 어긋나는 분열을 말하면서, 자신이 일본 체류 시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나의 유년시절의 뜻 모르는 서정성의 아픔”을 느꼈다고 고백하였다.⁵³⁾ 스스로를 “황국신민세대”로 규정한 김윤식은 이 책을 통해 ‘내 안의 일본’을 응시하면서, “흔과 논리의 갈등”이라는 논제로 제시하였다.⁵⁴⁾

오무라는『상흔과 극복』의 번역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다.⁵⁵⁾『상흔과 극복』은 모두 3부로 구성된다.『상흔과 극복』의 제1부는 원저『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제2부이며,『상흔과 극복』의 제2부와 제3부는 원저『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지면에 발표된 글을 모은 것이다. 오무라가 적극적으로 편집한 번역서『상흔과 극복』은 제1부에서 1940년대 한국문학의 이중어 글쓰기와 1970년대 일본의 재일조선인문학을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친일문학’의 역사적 의미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부에는 윤동주와 임화의 작가론이다. 제3부에 실린 임화론은 오무라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논문이며, 김윤식의 요청으로 추가한 것이다. 김윤식은 일본어 번역서의 서문을 새로 썼고, 오무라는 책 제목을 보다 인상적으로 ‘상흔과 극복’으로 다듬었다.

52) 김윤식, 『체험으로서의 한국근대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13쪽.

53) 김윤식, 『어느 일본인 베테기에』,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1-2쪽.

54) 1965년 한일회담을 전후하여 ‘황국신민세대’(해방세대) 문학자들은 유년시절 ‘황국소년 및 황국소녀’로서 경험을 떠올리며 ‘내 안의 일본’을 성찰하였다. 권보드래, 『내 안의 일본 -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397~442쪽. 김윤식의 ‘흔과 논리의 갈등’에 대해서는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271~275쪽; 장문석,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25~30쪽 참조.

55) 『상흔과 극복』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는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201~203쪽 및 장문석, 『김학철과 윤동주 -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81~82쪽에 근거하되 이 글의 시각에 따라 새롭게 서술하였다.

오무라는 역자 후기에서 김윤식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말기 전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음을 환기한다. 그는 ‘황국신민세대’의 육성을 담은 김윤식의 서문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과 김윤식의 유년 시절을 겹쳐 읽는다. 그 자신 역시 패전 전후의 경험을 고통스럽고 어둡게 기억하지만, 자신의 경험에는 식민주의라는 문제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무라는 “그들의 눈에는 내가 나의 소년기를 들고 나오는 것조차 우스워 보일 것이다.”라고 답답히 썼다.⁵⁶⁾ 『상흔과 극복』의 번역은 한국인 저자 김윤식과 일본인 번역자 오무라의 만남과 자료의 제공, 그리고 연구자로서 공동 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상흔과 극복』에 실린 김윤식의 「식민지 문학의 상흔과 그 극복」(『현대문학』 1972.2.;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에서는 연구자 오무라와의 공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김윤식은 오무라의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있어서 조선의 문화 상황」과의 대화적 관계에서 이광수와 다나카 히데미쓰 등을 중심으로 식민지 문학을 분석한다.

오무라의 글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으로부터 촉발하여 쓴 글이었다. 임종국은 이광수에 대하여 “이광수의 친일활동이 그로서는 황국신민이 되어야겠다는 철저한 의식과, 또 그것이 조선 민중을 위하는 길이라는 신념에 입각한 당국에의 맹종”이었다고 판단한다.⁵⁷⁾ 오무라는 임종국의 판단에 공명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오무라는 임종국이 활용하지 않은 자료 『동포에게 고향(同胞に寄す)』, 『내선일체수상록(内鮮一体随想録)』 등도 연구에 활용하였다.⁵⁸⁾ 오무라는 이광수의 『내선일체수상록(内鮮一体随想録)』을 분석하여 “이광수의 내선일체와 총독부의 내선일체가 동일할 수는 없”으며, 그가 대일협력을 주장함에도 “그가 조선인임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신중히 진단한다.

56) 大村益夫, 「訳者あとがき」, 金允植, 大村益夫 訳, 『傷痕と克服』, 朝日新聞社, 1975, 275~276頁.

57)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305~306쪽.

58)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310쪽.

그(이광수 - 인용자)에게는 조선이 저항했을 때 민족 멸망의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회피하려는 계산만으로 눈물을 머금고 위장 투항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위장 기간의 너무 길어져 어느새 무대에서의 배역을 실제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만 것은 아닐까? 총독부가 아무리 동화, 협화를 외친들, 또 백 보를 양보하여 조선인이 비록 일본에 동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일본인 측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광수의 일제에 대한 인식의 달콤함을 쉽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의 주관적인 선의만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셈이었지만.⁵⁹⁾

오무라의 서술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하다. 그는 이광수의 대일협력에 위장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 선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광수가 위장의 포즈와 실제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비판적으로 진단한다. 오무라는 이광수에 대한 후대 연구자의 판단이 외부에서 평면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광수에 접근하는 오무라의 태도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분리불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역경을 무릅쓰고 사실로서의 사상을 해부하여 “문혀 있는 사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그의 스승 다케우치 요시미의 태도와 닮아 있다.⁶⁰⁾

김윤식 역시 오무라의 입장에 공명하였다. 김윤식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아일랜드나 인도 식민지 지배와 대별한 후, “일제 말기 한국 지식인이 갈 길이란 (1) 눈을 뜨고 전진하든가 (2) 눈을 감고 절망하든가 (3) 타협하는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단하였다. 김윤식은 이광수의 대일협력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오무라와 마찬가지로 “이광수의 그러한 내선일체

59)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社会科学討究』 43, 早稲田大学 社会科学研究所, 415~416頁. 앞 문단의 인용은 각각 417頁 및 418頁에서 가져왔다.

60)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1959), 마루카와 데쓰시·스즈키 마사히사 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 - 고쳐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114쪽.

론의 치졸한 견해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였다.⁶¹⁾ 김윤식이 판단에 신중을 기한 근거 역시 오무라와 마찬가지로 이광수의 『내선일체수상록(內鮮一體隨想錄)』의 일절 때문이었다.

1966년 한국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1970년 3월 일본 오무라의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있어서 조선의 문화 상황」을 촉발하고, 오무라의 글이 1972년 2월 한국 김윤식의 「식민지 문학의 상흔과 그 극복」 집필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김윤식의 글이 오무라의 번역으로 1975년 7월 일본에서 출판된다. 한국의 연구자와 일본의 연구자가 한국문학을 매개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오가면서 학술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고 연구의 대상이 확장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오무라는 ‘조선문학의 회’를 결성하여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와 함께 번역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한국의 연구자와 소통하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동의 논의 장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의 연구자와 함께 일본에 소장된 한국문학 관련자료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소개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문학 및 북한 문학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를 쌓은 저작 중 한 권인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는 이와 같은 협업 위에 출판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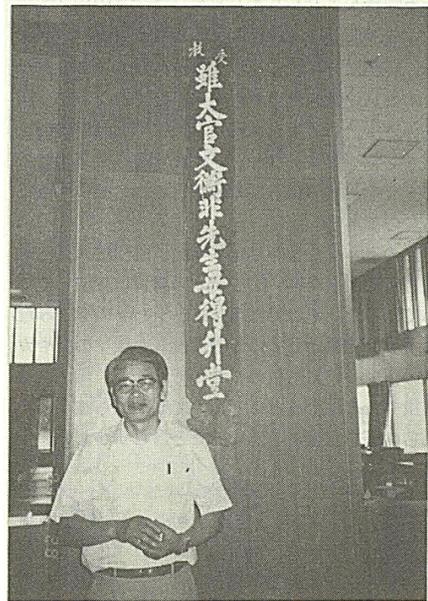
4. 아카이브의 개방 - 목록집, 자료집, 문학 지도

‘조선문학의 회’ 동인으로 활동 중이던 1972년 오무라 역시 현해탄을 건너 한국으로 향한다. 그는 자신의 한국 체류 경험을 『조선문학 - 소개와 연

61) 김윤식, 「식민지문학의 상흔과 그 극복」, 134~135쪽; 金允植, 大村益夫 訳, 「植民地文学の傷痕とその克服」, 109~111頁. 김윤식의 글에는 “내선일체론자들의”로 되어 있지만 오무라는 “내선일체론의”로 바로 잡아 옮겼다. 이 글은 오무라의 교감에 따른다.

구』 제10호(1973.9.)에 「그 땅의 사람들」로 정리하였다.⁶²⁾ 오무라의 첫 한국 체류는 1972년 동국대에서의 6개월 체류였으며, 그는 서울대 어학연구소의 한국어 중급반에 등록하였고 수료하였다.⁶³⁾ 그는 한국 체류 중 본격적으로 한국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정리한 오무라 마스오 기증자료 목록(초안) 가운데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도서관 안내』, 『고려대 중앙도서관 도서관 안내』, 『인천직할시립도서관 장서목록 색인』 제2집,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문헌선록』,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안내』, 『삼성출판박물관』 팜플렛, 『고려대 중앙도서관 1992 도서관 안내』,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사서국 국내간행물 기사색인 <1945-1957>』 등의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오무라가 한국 체류 중 한국의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민간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다니면서, 한국근대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방증한다. 그는 시민에게 공개된 도서관 및 문학관에서 자료를 모았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였다.

오무라는 1987년 여름방학을 맞아 2개월 간 교환연구원으로 고려대에 체류하였고, 이듬해 서울의 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발표한다. 그는 당시 서울 시내에 공공 도서관이 17개,



〈그림4〉 규장각 도서 열람실 입구의 오무라 마스오
(『ふみくら - 早稲田大学図書館報』 13, 1988.)

62) 오무라의 한국 체류에 관해서는 장문석, 「김학철과 윤동주 -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74-82쪽 참조.

63) 국립한국문학관 오무라 마스오 기증자료 목록(초안) 가운데서 「수료증 오무라 마스오 -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장(5급 3차 쓰기 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도서관은 1교 1개로 헤아려도 60개에 달할 것으로 계수한다. 그는 이전의 한국 체류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대학이 봉쇄되자 국립중앙도서관을 날마다 다녔음을 회상한다. 다만, 10여 년 전에 보았던 책을 찾지 못한 경험도 있어 허술한 도서 관리를 염려하였다. 오무라는 각 도서관의 상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총독부 도서관을 계승하고 1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1955년에 개관하여 자료가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장서를 확장하고 있어서, 장래에 일본의 국회도서관같은 중심 역할을 하기로 기대된다. 대학 도서관의 경우, 각 도서관의 특징을 대별하였다. 오무라는 도서관에서 보낸 일상을 적어두었다.

매일같이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열람과장 도서과장 등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바둑을 두고 호되게 패하기도 했다.

고려대 도서관은 (대체로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지만,) 일반 도서관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희귀본·귀중본은 각각 ㉠·㉡ 라벨을 붙여 별치하며, 보통 열쇠로 잠가두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희귀본은 구하기 어려운 전쟁 전 출판물과 국내외 좌익계 서적 등이고, 귀중본은 중요문화재급 도서자료로 고려시대(10세기-14세기), 이조시대(15세기-20세기 초)의 판본도 많아 그 질과 양에 압도된다. 희귀본 및 귀중본은 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특정 열람실에서 볼 수 있고, 책에 따라 복사도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에는 8개의 문고가 있고 귀중본도 많다. 육당문고(六堂文庫)(육당은 최남선의 호(號), 와세다 대학의 졸업생이자 신문화 개척자의 한 사람)도 그 중 하나이다.

서울대 도서관은 의학, 농학, 법학 등 각 전문에 다른 분관을 별도로 하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옛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책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중앙도서관과 다른 하나는 규장각 도서관이다. 규장각은 1776년에 설치된 당시 왕실 기관으로 기록 보존 및 장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규장각 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입구는 별도), 조만간 안에 분리하여 규장각 도서관만의 건물을 세울 계획이라고 들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고에도 의자를 쟁겨 4-5일 여유롭게 볼 수 있었다. 국문

학 김용직 교수의 소개도 있었고, 처음 안내해 준 젊은 직원이 재작년 『조선학보』에 실은 내 논문이 지난해 한국에서 번역된 것을 알고 열렬히 환영했다.⁶⁴⁾

오무라는 매일 여러 도서관을 출근하듯 드나들면서, 직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각 도서관의 역사와 구조, 특징을 면밀히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그는 식민지 시기 문헌의 계승 및 분포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좌익 계열 서적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한국의 지식 관리 체계 또한 검토하였다. 오무라는 틈틈이 한국의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한국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

오무라의 자료 수집은 임종국과의 교류에도 겹쳐 있었다. 김윤식이 직접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와 오무라와 교류하였다면, 임종국은 오무라와 짧지 않은 시간 서신과 자료, 그리고 자료로 교류하였다. 임종국이 쓴 『친일문학론』에 촉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있어서 조선의 문화상황』을 쓰기도 했던 오무라는 『친일문학론』 번역 요청을 계기로 임종국과 서신교류를 시작하였다.⁶⁵⁾ 오무라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친일문학론(親日文学論)』(高麗書林, 1976)으로 간행하였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은 식민화된 자아를 서술하고 성찰하는 탈식민주의 비평인 동시에, 친일 혐의의 동족의 이름을 불러내어 논고와 변론을 수행하는 역사적 비판이었다.⁶⁶⁾ 오무라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친일문학론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오무라는 『친일문학론』의 글쓰기를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엄정한 사실의 축적이 현실에 대해 통렬한 비판적 개입을 수행하는 모범으로 판단하였다.⁶⁷⁾

64) 大村益夫, 「ソウルの図書館たち」, 『ふみくら - 早稲田大学図書館報』 13, 早稲田大学図書館, 1988, 11頁. 야나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확인하였다.

65)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198쪽.

66) 이해명,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37쪽.

67) 1970년 오무라는 『친일문학론』에 대하여 “배울 바가 많은 책”이며, “평가는 피하고 자료를 나열하는 서술방법을 취하였지만, 그것이 ‘친일문학자’에 대한 침묵의 격렬한 규탄이 된다.”라고 고평하

내가 처음 임종국 선생 댁을 방문한 것은 1981년 3월 1일이었다. 천안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30분 정도 산을 넘어 가는 곳으로, 차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 책상도 없어 사과상자를 얹어놓고 쓰고 있었다. 이거야말로 멋지다, 대장부답다, 무서운 신념을 지닌 이가 여기 있구나, 생각했다. /『친일문학론』은 춘추필법으로 쓰인 것이다. 주관적인 비난, 증상의 언어는 한 군데도 없으며, 오로리 사실만을 축적해 감으로써, 해방 전의 문화 상황과 문인들의 발언을 재현하였다. 저명인이건, 권력자이건, 대학의 은사이건,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건 간에 집필에 임할 때는 붓을 굽히는 적이 없었다.⁶⁸⁾

오무라는 『친일문학론』의 글쓰기를 ‘춘추필법’으로 해석하였다.⁶⁹⁾ 그는 이 책이 “당시 나온 한국 책 중에서는 드물게 자료의 인용이 정확”했다고 평가하고 “정확히 자료를 인용한 책이기에 번역 역시 정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⁷⁰⁾ 임종국은 1966년 한국에서 『친일문학론』을 집필하면서 식민지 조선 문학자들의 일본어 글쓰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오무라는 『친일문학론』의 일본어 번역 과정에서 1차 자료인 일본어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원문을 바로 인용하였다. 그는 원문 확인을 위해 1년의 시간 동안 임종국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자료의 제공 및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오무라는 임종국이 원저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항, 혹은 일본 독자에게 해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술적 주석 수십 개를 붙였다. 임종국의 연구를 번역하면서, 오무라는 정확한 자료의 제시라는 임종국의 시각과 방

였다.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423頁, 註2.

68) 오무라 마스오, 「임종국 선생님을 그리며」(『실천문학』 81, 2006. 봄), 오무라 마스오, 정선태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상호이해의 길』, 소명출판, 2017, 134~135쪽.

69) 『친일문학론』이 보여주듯, 임종국의 글쓰기는 오무라가 ‘춘추필법’이라고 평가한 정확한 자료의 축적과 엄정한 사실의 축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홀려간 성좌』(1966)나 『일제침략과 친일파』(1982) 등이 보여주듯, 임종국의 글쓰기는 ‘민족사적 생명’이라는 마나(manā)를 분유한 인격(personality)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전(傳), 혹은 도덕적 담화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이혜령, 「인격과 스캔들 - 임종국의 역사서술과 민족주의」,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37쪽, 442~459쪽.

70)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198~199쪽;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204쪽.

법에 공명하였다.

『친일문학론』간행 이후 임종국과 오무라는 임종국의 타계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매개로 서신과 우정을 주고 받는다. 1977년 오무라가 『친일문학론』 인세를 보내자 임종국은 『동양지광』 및 『국민문학』 6책을 선물한다. 오무라가 선물을 보내면, 임종국은 자신이 새로 쓴 글과 자료를 보냈다. 1984년 임종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복사 중하였고 『매일신보』 10년 치를 필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종국은 오무라가 부탁한 『매일신보』 문학 관계 기사의 필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오무라가 사례금을 보내자, 임종국은 『녹기』 복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 1987년 오무라는 임종국이 받지 못한 일본어 번역서 인세가 지급되도록 도왔고, 1989년 임종국은 자신의 저서 『일본군의 조선 침략사』를 보냈다.⁷¹⁾

한국근대문학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무라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로서 목록과 자료집을 작성하고 편찬하였다. 특히 그는 오무라는 일본어로 작성된 한국문학 관계 자료나 일본에 소장된 한국문학 자료의 정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 자료는 당시 한국의 연구자들의 관심 바깥에 있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오무라가 일본에서 접근성이 높은 상태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일찍이 1967년 오무라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조선근대문학에 관한 일본어 문헌 목록(朝鮮文學に関する日本語文献目録)」(『朝鮮研究』, 1967.8.)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1925년에서 1967년까지 일본의 신문 및 잡지에서 발표된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일본어 번역, 소개, 논문 등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오무라는 재일조선인의 창작을 제외하고 신소설 이래 한국문학 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 목록은 일한협회(日朝協會) 오사카연합회(大阪府連合會) 및 일조무역문화센터(日朝貿易文化センター)가 발행한 「조선에 관한 일본어판 도서목록(朝鮮に関する日本語版図書目録)」, 코리아평론(코리아評論)의 「문헌목록(文献目録)」, 재일조선인 연구자 임전혜(任展慧)가 작성한 1920~1930년대 연표 등을 바탕으로

71) 오무라 마스오, 「임종국 선생님을 그리며」(『실천문학』 81, 2006.봄), 오무라 마스오, 정선태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상호이해의 길』, 131~144쪽.

작성한 것이었다.⁷²⁾

이후 오무라는 일본과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카드로 정리하였다. 그는 『개조』, 『신조』, 『중앙공론』의 잡지 목록집과 『현대일본 문예총람(現代日本文芸総覽)』 등 일본의 잡지 기사 목록을 적극 활용하였고, 일본의 국회도서관, 근대문학관, 와세다대학 도서관 등에서 직접 자료를 확인하였다. 자신이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자료를 보완하였다.⁷³⁾

오무라의 지속적인 자료 정리가 결실을 맺은 것은 그가 임전혜와 함께 간행한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プリントピア, 1984)이다.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은 1904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조선문학과 관련된 일본어 문헌을 1,712매의 카드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간행된 문헌 외에 식민지 조선에서 간행한 문헌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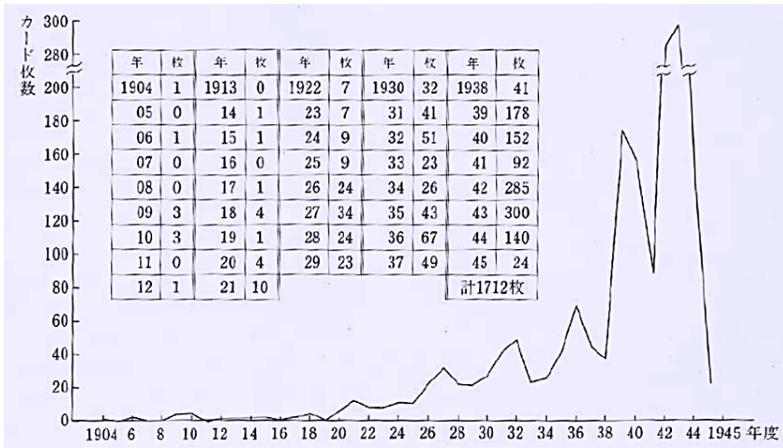
이 목록은 일본어로 쓰인 조선 문학 관계의 문헌을, 그 내용 여하를 묻지 않고 전부 수록하였다. 백 가지 논의에 앞서, 그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⁷⁴⁾

오무라는 우선 내용 여하에 무관하게 조선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서 문헌을 통해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및 연구의 전체적인 지형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연구의 기초가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텍스트의 생산 및 분포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 위에서 새로운 이론 및 가설의 제안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역설하였다.

72) 大村益夫・石川節・小倉尚・樋口雄一, 「朝鮮文學に関する日本語文獻目録」, 『朝鮮研究』64, 1967.10, [附録] 1~2頁.

73) 大村益夫,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의 編纂, 『書誌索引展望』8(3), 日本索引家協會, 1984.8, 24~26쪽. 야나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확인하였다.

74) 大村益夫, 『まえかき』, 大村益夫・任展慧 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 プリントピア, 1984, [쪽수없음].



〈그림5〉『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1984) 편찬을 위한 카드 매수 그래프
 (『書誌索引展望』8(3), 日本索引家協會, 1984.8.)

오무라는 1,712매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일본어로 된 한국문학의 창작, 연구, 소개의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그는 통감부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문학이 연구 및 소개 되기 시작하였고, 1925~1936년에 전지구적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고양에 발맞추어 주로 좌익 성향의 문헌이 발표되었다고 보았다. 1936년 이후 일본어 한국문학 문헌이 급증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괴멸 이후 일본문학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조선문학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일본문단의 의도와 일본어라도 민족의 문학을 계승하고자 한 조선인 문학자의 의도가 부합한 결과였다. 1941~1944년에 ‘친일문학’의 급증으로 일본어 한국문학 문헌 역시 급증한다. 1944~1945년에 전세 악화, 용지 및 인쇄소의 부족, “이제 문학 따위는 미지근하다는 격양된 절규만이 지면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문헌 수 역시 감소한다. 이와 같은 진단 위에서 오무라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어로 된 조선문학의 창작·연구·소개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요청에 따르고 있다”고 진단한다.⁷⁵⁾

연구의 진행에 따라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면 목록 역시 새로 작성되어야

75) 오무라 마스오, 「일본에서의 남북한문학의 연구 및 번역 상황」(『한국문학』, 1992.3·4-5·6.),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613~614쪽.

한다. 오무라 역시 1984년에 이후에 증보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는 실제로 1997년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와 함께 다시 한 번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 - 1882.4.~1945.8.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 - 1882.4.~1945.8.)』(1997)을 간행한다. 증보한 목록은 1868년에서 1945년 8월까지로 목록의 시기를 확장하였고, 문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민화, 저널, 영화, 연극, 음악, 무용, 회화 등도 포함하였다. 이 목록을 간행하면서 오무라는 목록 작업의 어려움과 보람을 기록해 두었다.

목록 작성의 어려움은 목록을 만든 사람이 잘 안다. 이렇게 노고가 많고 치밀한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것이 논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외로 낮지만, 사실, 양질의 목록은, 이러저러한 논문이 수백 편 모인다고 해도 당해낼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후학이 얼마나 그 은혜를 입을지 모른다.⁷⁶⁾

또한 오무라는 ‘만주’ 지역의 자료목록을 정리하였다. 그가 이상범(李相範)과 함께 정리한 『『만선일보』 문학 관계 기사 색인 - 1939.12.~1942.10. (『滿鮮日報』文学関係記事索引 - 1939.12~1942.10.)』(1995)과 호테이와 함께 정리한 『구 ‘만주’ 문학 관계 자료집 (旧「滿洲」文学関係資料集)』(전 2권, 2000) 이 그 예이다.

1990년대 이후 오무라는 자료목록을 정리하는 한 편, 자료집 및 작품집의 형태로 공간하였다. 그는 호테이와 함께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을 바탕으로, 거질의 자료집 『근대조선 문학일본어작품집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綠蔭書房, 2001~2008, 전 23권)을 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제1기(1939~1945) 창작 6권, 평론·수필 3권, 제2기(1901~1938) 창작 5권, 평론·수필 3권, 제3기(1908~1945) 3권 등 3번에 나누어 출판되는데, 오무라는 특히 제1기인 1939~1945년 사이의 작품집 간행에 힘을 썼다.

76) 大村益夫, 「まえかき」,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 - 1882.4.~1945.8.』, 綠蔭書房, 1997, 1~2頁.

여기에 실은 작품군은, 거듭 말하지만, 일본어로 쓰여 있었던 까닭으로, 이른바 ‘친일 문학’으로 취급되어, 그 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제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물론 이들 작품은 어느 나라의 문학은 그 민족언어로 쓰인 작품이 중심이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결실할 수 없는 꽃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들 일본어 작품에도 어김없이 조선인 문학자들의 생활과 고뇌가 새겨져 있다. 시대를 알고 또한 그렇게 한 시대에 살았던 문학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뼈 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 본 작품집은 초출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본 작품집은 초출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그와 관련하여 김사량의 작품을 다시 초출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도, 본 작품집의 한 가지 특징이다. [……] 왜냐하면 현재 가장 널리 유포되고 논문 등에서도 텍스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가와데쇼보신사(河出書房新社)판 『김사량전집(金史良全集)』에는 본문에 편자의 손길이 다소 가해졌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작품집에 수록 및 기록된 초출 원 텍스트와 비교하기 바란다. [……] 또한 안이하게 단행본을 복각하는 것도 가급적 피했는데, 예외로 최병일의 『배나무(梨の木)』, 김종한의 『어머니의 노래(たちねのうた)』, 『설백집(雪白集)』, 그리고 평론편에 포함되는 최재서의 『전환기의 조선문학(轉換期の朝鮮文學)』 네 권만 전권을 수록하였다. 이들은 그 단행본으로서의 통일성을 중시하여 수록 작품의 초출 연도에는 구애받지 않았다.』⁷⁷⁾

오무라는 한국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일본어 작품집을 간행한다. 그는 일본어 글쓰기를 배제하기 보다는 일본어로 표현된 한국 문학자의 생활과 고민에 귀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는 텍스트는 초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이미 일본에서 유통되었던 전집 등이 범한 편자 개입 및 텍스트 오류를 넘어서 한국문학에 대한 온당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1997년 오무라는 최재서가 간행한 인문사(人文社)의 『국민문학(國民文學)』의 복각본(영인본)(1997~1998)을 출판한다.

77)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39-1945) 創作篇』解説,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39-1945) 創作篇』6, 緑蔭書房, 2001, 471~472頁.

‘일제말 암흑기’ 유일의 문학 잡지 『국민문학』(『국민시가』 몇 권이 나왔지만, 『국민문학』에 비할 수 없음)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문학과의 관련성을 보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당시 조선인 문학자들의 정신 상황, 나아가 조선의 문학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어쨌든 이 시기의 문학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정도이다. 우선 한국에서도, 각종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을 돌아다녀도 『국민문학(國民文學)』을 갖추어 둔 곳이 없다. 한국에서 영인본이 나왔다고는 하나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앞서 쓴 논저의 저자(한일의 연구자들 - 인용자)도 『국민문학』 전모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복각본은 귀중하다.

『국민문학』을 바라보는 시점은 여럿일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식민지 지배의 정신적 가학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 어느 국가의 권력이 다른 나라의 정신문명을 빼앗으려 했던 비인간적인 시도가 윤리성도 없이 결국은 장대한 허사로 끝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문학』을 친일 문학지로 규정하는 것은 안이하다. 시국과 함께 친일색이 짙어져 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친일 일색은 아니며, 각 사람마다의 갖가지 고뇌 속에서 그 이전 시기의 문학 행위를 질질 끌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는 불씨를 남겼다는 면도 있었던 것이다.⁷⁸⁾

오무라는 당시까지 『국민문학』의 전모를 본 사람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한국의 도서관도 그 전부를 갖추지 못하였고, 한국의 영인본은 부실했다. 오무라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소장한 자료를 더하여,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에서 1945년 5월호를 복각본 전 13권으로 편집하여 출판하였다.⁷⁹⁾ 또한 그는 『국민문학』 복각본 별책으로 해제, 총목차, 저자명 색인 등 잡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해제에는 자료의 출판상황 및 성격, 용어 및 표기, 주요 작가 및 작품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동시에 해제에서는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결호(1945년 4월호), 원문이 훼손된 부분(검열 의심), 인쇄 상태가 불량한 부분

78) 大村益夫, 「解題」, 『國民文學』別冊 - 解題・總目次・索引, 綠陰書房, 1998, 18頁.

79)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이 필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2021. 1. 15.).

에 대하여 복원한 부분과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 등을 정확히 밝혀두었다.

일찍부터 ‘친일문학’에 대한 외면이나 평면적인 비판에 신중한 거리를 두었던 오무라는 ‘친일문학’ 연구에서 임종국의 선구적인 연구가 가지는 위치를 짚은 이후, 1997년 당시에조차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⁸⁰⁾ 『국민문학』 복각본 출판은 이 시기 한국문학의 온당한 파악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오무라는 『국민문학』의 대일협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모색된 다양한 사상적 고민을 섬세히 살피면서 이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 오무라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기초로서 유학 관련 자료 및 지리 정보의 정리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한국 근대문학 문학자의 일본 유학 자료 발굴 및 한국근대문학과 관련된 장소의 위치 비정에 힘썼다. 오무라는 대학 기관과 교섭하여 학적부 등을 확인하여 문학자의 약력, 수학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⁸¹⁾ 또한 오무라는 한국의 문학자들이 활동하였던 단체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그는 잡지의 판권면과 광고, 그리고 신문기사 등 다른 연구자가 지나치는 정보를 정리하여 각 기관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지도를 통해 그 위치를 검증하고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하였다.⁸²⁾ 여러 정보가 축적되면 오무라는 그 정보를 한 편의 글로 정리하였다. 『폐허』의 인쇄소 후쿠인인쇄합자회사(福音印刷合資會社)를 비롯하여 요코하마에서 확인한 한국근대문학 관련 지리 정보는 「제2차 세계

80) “한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년 출판) 이외에는 거의 누구도 이 시기의 문학 연구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려 했다. 해방 전부터 활동했던 기성 세대는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아팠고, 해방 후 젊은 세대는 친일 문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역겨워하면서 ‘암흑기’는 문학사의 공백기로 외면하였다. 임종국은 그 터부를 깨고 『친일문학론』을 집필하는 바람에 일정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천안 교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언덕 위에 손수 집을 짓고, 사과 상자를 책상 삼아 집필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大村益夫, 『解題』, 17頁.

81) 大村益夫, 『早稲田出身の朝鮮人文學者』, 『語研フォーラム』 14, 早稲田大學語學教育研究所, 2001. 오무라가 수집한 학적부 등 자료는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의 『일본 유학생 학적 자료』로 실렸다. 하타노 세츠코, 최주환 역,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 소명출판, 2011, 12쪽.

82) 오무라 마스오 기증자료를 검토하면, 오무라는 『창조』 1호 및 2호의 광고를 통해 여자계사의 정보를 확인하였고, 『조선일보』 1927년 10월 10일자 기사 「조선'프로'예술 동맹의 동경지부 - 2일 밤에 창립대회를 성대히 거행하고 결의」를 통해 당시 카프 동경지부가 신간회 동경지부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위치를 당대 일본 지도와 교차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가마쿠라 고메신체에 있었던 김사량의 하숙집을 답사하였다.

대전 전의 조선문학과 가나가와」로 발표되었다.⁸³⁾

오무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문인의 학적부를 열람하여 복사하고 또한 문학답사 지도를 제작하였다. 동시에 기초적인 자료 수집에서 나아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한국근대문학자의 일본 체류 경험을 연구하고 그 자료를 공간하였다.⁸⁴⁾

오무라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자료를 건넬 뿐 아니라, 여러 목록과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에 대한 오무라의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민주주의와 ‘열린 공공성 (Offentlichkeit)’⁸⁵⁾을 지향한 것이었다.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文献目録)』을 정리하고 있던 1980년 오무라 마스오는 1970년대 일본 문학 장의 김지하 붐에 대하여 비판적인 거리를 제시한다. 그는 김지하 출판물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 “특수한 루트를 통하여 작품을 입수하며, 원문을 공표하지 않는다거나, 타자에 의한 번역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들 번역의 개역도 허락하지 않는 태도에는, 무언가 권력적인 기미마저 있다. 순진한 사람들로서는 유감이 다.”라고 진단하였다.

구원활동과 작품의 발표와 진정한 이해의 삼위일체선언의 앞에서, 필자는 머뭇거리고 고개를 가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타자에 의한 다양한 이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원문은 전부 공표하여, 각 사람이 각 양의 번역소개를 수행하고, 다양한 작품이해를 전개하여 그속에서 ‘진정한 이해’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닐까.⁸⁶⁾

83) 오무라 마스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조선문학과 가나가와」,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율동주와 한국근대문학』, 266~268쪽.

84) 布袋敏博·波田野節子·芹川哲世·白川豊·藤石貴代·大村益夫, 『近代朝鮮文学における日本との関係様相』, 緑陰書房, 1998.

85) Offentlichkeit은 보통 ‘공공성’으로 번역된다. 철학 연구자 박서현은 Öffentlichkeit의 어원인 offen가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것을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초과 혹은 열림의 계기를 강조하기 위해, ‘열린 공공성’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하였다. 박서현, 「지식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 -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754쪽, 주석3.

오무라 마스오는 한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면서 김지하에 연대하였던 일본 시민사회의 김지하 출판물이 오히려 김지하에 대한 해석의 평면화와 단일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고민하였다. 나아가 오무라는 자료의 공개와 이에 근거한 다양한 번역과 이해의 경합, 그리고 그로서 구성되는 문학의 ‘민주주의’를 요청하였다.

2000년대 오무라는 일본의 운동주 번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들인 번역 역시 지면에 공개하였다.

나는 내 번역에 결점이 없었던가, 질이 높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보다 적절한 번역이 있다면 언제나 고치고 싶다. 한 작품을 둘러싸고 다수의 번역이 나오고, 서로 경쟁해서 보다 좋은 번역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⁸⁷⁾

오무라는 하나의 작품의 번역이 다양하게 제출될 때, 그 번역의 경합을 통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 소통이 축적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좋은 번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운동주 문학과 그 번역에 대한 논의 공유할수록 지식이 증식한다고 판단하였다. 오무라의 학술적 실천은 지식을 비감소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커먼즈(공유재, commons)로 이해하는 입장과 공명하면서, 지식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 곧 지식의 ‘열린 공공성’을 지향한다.⁸⁸⁾

86) 大村益夫, 『韓国近代文学と日本』, 緑陰書房, 2003. 336~337頁.

87) 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의 「서시」 번역에 대하여」(『言葉のなかの日韓関係』, 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 2013. 4.), 오무라 마스오, 광형덕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24쪽.

88) 박서현, 「지식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 -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 753~754쪽 참조.

5. 오무라 마스오의 아카이브 -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와 ‘열린 공공성’

오무라 마스오는 일본의 제1세대 한국근대문학 연구자, 번역가, 그리고 자료수집가였다. 식민지와 냉전으로 인해 한국근대문학 자료는 북한, 한국, 중국, 일본에 산재하였다. 오무라는 연구와 번역에 앞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오무라는 제일조선인의 서재, 북한의 출판물, 일본의 도서관을 통해서 한국근대문학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그는 김윤식, 임종국 등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연구를 검토하고 번역하였다. 오무라의 아카이브와 번역, 그리고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본원적 축적에 기여하였다. 또한 오무라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목록집, 자료집, 문학 지도 등으로 공간하였다. 오무라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널리 공유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번역과 연구의 시각의 경합과 풍요로운 지식의 생산을 지향하였다. 오무라 마스오의 아카이브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의 ‘열린 공공성’을 지향하는 연구의 태도를 시사한다.

청년 오무라는 일본의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토대가 전혀 없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말년을 맞은 오무라는 여전히 2020년 전후로도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가 소수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였다.

우리는 ‘소수 민족’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만들었을 때부터 사상과 의견이 다른 분들과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일본 내 조선문학 연구가 ‘소수 민족’적인 상황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사회인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동지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내의 조선문학 연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⁸⁹⁾

오무라가 발굴한 자료와 연구는 한국의 임종국과 김윤식의 자료 및 연구와 공명하면서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본원적 축적’에는 일정 기여하였다. 하지만 그는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가 여전히 소수적인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소수적인 위치와 조건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오무라 마스오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본원적 축적’의 문턱에서, “사회적 생산의 발전과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소경영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있다.⁹⁰⁾ 연구자의 자유로운 개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오무라의 학술적 실천은 지금 · 이곳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를 성찰할 수 있는 기준과 계기가 된다.

8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이전 노동자의 사적 소유를 소경영(small-scale industry)의 기초로 이해하면서, 소경영은 사회적 생산의 발전과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자본의 본원적 축적(시초축적)과 함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집중된 생산수단으로 전환되고, 다수의 영세한 소유가 소수인의 거대한 소유로 전환된다. 그는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 토지와 생활 수단, 및 노동도구를 수탈하는 것을 자본의 역사의 전주곡이라 언급하였다.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225쪽.

90)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1(하), 비봉출판사, 2015, 1043~1044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社会科学討究』43, 早稲田大学 社会科学研究所, 1970.3.
- _____, 「ソウルの図書館たち」, 『ふみくら - 早稲田大学図書館報』13, 早稲田大学図書館, 1988.
- _____, 「解題」, 『『國民文學』別冊 - 解題・総目次・索引』, 緑蔭書房, 1998.
- _____, 「早稲田出身の朝鮮人文学者」, 『語研フォーラム』14,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2001.
- _____, 『韓国近代文学と日本』, 緑蔭書房, 2003.
-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운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 _____, 광형덕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7.
- _____, 정선태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상호이해의 길』, 소명출판, 2017.
- 편집부 편,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6 - 오무라 마스오 문학앨범』, 소명출판, 2018.
- 광형덕 편,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 大村益夫・任展慧 編,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 プリントピア, 1984.
-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朝鮮文学関係日本語文献目録 - 1882.4.~1945.8.』, 緑蔭書房, 1997.
- _____,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39~1945) 創作篇』6, 緑蔭書房, 2001.
- 布袋敏博・波田野節子・芹川哲世・白川豊・藤石貴代・大村益夫, 『近代朝鮮文学における日本との関係様相』, 緑蔭書房, 1998.
- 김윤식, 「임화 연구 - 비평가론 기7」,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4, 서울대 교양과정부, 1972.
- _____,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일문고, 1973.
- _____,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 _____,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1988.
- _____, 『박영희 연구』, 열음사, 1989.
- _____, 「글쓰기의 리듬감각 -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마치며」, 『김윤식평론문학선』, 문학사상, 1991.
- _____,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 숲, 1995.
- _____, 『체험으로서의 한국근대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 _____,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 _____, 『백철연구』, 소명출판, 2010.
- _____,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2012.
- _____,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 金允植, 大村益夫 訳, 『傷痕と克服』, 朝日新聞社, 1975.
-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 - 비평 2』, 소명출판, 2009.

『조선문학』, 『조선일보』, 『한겨레』, 『民主文学』, 『書誌索引展望』, 『朝鮮文学 - 紹介と研究』, 『朝鮮研究月報』, 『朝鮮研究』, 『朝日アジアレビュー』

2. 논문 및 단행본

- 권보드래, 「내 안의 일본 -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 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 김민수, 「해방'의 전통과 복원 - 김학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 남원진,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 원리와 균열 양상 -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 박서현, 「지식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 -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 오미정, 「전후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수용 - 잡지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 _____, 「1950년대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특징 - 『신일본문학』과 『인민문학』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3(1), 한국근대문학회, 2012.
-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 이용범, 「김달수의 「살해당한 김태준에 대하여」(1951) 자료 소개」, 『근대서지』 21, 근대서지학회, 2020.
-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 _____, 「인격과 스캔들 - 임종국의 역사서술과 민족주의」,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장문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의 학술사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 _____,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 2015.
- _____, 「김학철과 윤동주 - 오무라 마사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학어문학』 88, 동학어문학회, 2022.
- _____,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2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22.
- 정진석, 『책 잡지 신문 자료의 수호자』, 소명출판, 2015.
- 조은애, 『diasporas의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재일조선인 문학』, 소명출판, 2021.
- _____, 「조선학을 되돌아보기 위한 괄호들 - 히타다 다카시 편, 주미애 옮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 제국 일본, 조선을 말하다』(소명출판, 2020)」, 『동방학지』 19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2.
- 주미애, 「일본조선연구소의 연대(連帶)의 공명(共鳴) 방식과 일그러진 조선관 -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연속 심포지엄과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2.
-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4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2.

다케우치 요시미, 마루카와 데쓰시 · 스즈키 마사히사 편, 윤여일 역,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 - 고뇌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미셸 푸코,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1(하), 비봉출판사, 2015.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2011.

Omura Masuo's Archive:

Basis of Research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Ideology of 'Open Publicness'

Jang, Moon-seok*

Omura Masuo was the first generation Japanese researcher, translator, and archivist of modern Korean literature. Due to the 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the material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were scattered in Two Koreas, China, and Japan. Omura had to collect material before research and translation. Omura began collecting materials through bookselves of Zainich, publications in North Korea, and libraries in Japan. After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e discovered and shared materials with Korean researchers such as Kim Yoon-shik and Im Chong-gug, reviewed and translated each other's studies. Omura's archives, translations, and studies contributed to the fundamental accumul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research. In addition, He collected various materials through librarie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and China, and used them as lists, collections of literature, and literary maps. Omura widely shared the data he organized so that researchers could use it freely, aiming to compete with various translations and research perspectives and produce rich knowledge. Omura's archive shows the process of forming the foundation of the stud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at the same time suggests the attitude of research toward the 'open publicity' of knowledg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 Omura Masuo, Kim Yoon-shik, Im Chong-gug, material, translation, modern Korean literature, library, open publicness